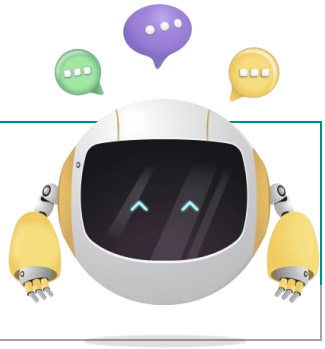
Tech&Stock Weekly

2026.01.16



Analyst 김재임 jamie@hanafn.com | Analyst 김시현 sihyun_kim@hanafn.com | RA 송종원 1223sjw@hanafn.com

알파벳 AI의 확장 가속화

AI/플랫폼

엔비디아(NVDA.US): 일라일릴리와 AI 공동 연구소 설립

- 일라이릴리 연구진과 엔비디아 AI 인력이 한 팀으로 일하면서 데이터 생성, 모델 학습, 실험 검증을 빠르게 반복하는 운영 구조를 목표로 함

애플(APPL.US): 구글 Gemini로 차세대 Siri 개편 추진

- 애플이 구글과 다년 협업 맺고 차세대 Apple Foundation Models을 Gemini 모델과 구글 클라우드 기술 기반으로 구축, 더 개인화된 Siri와 향후 Apple Intelligence 기능에 적용할 예정

알파벳(GOOGL.US): AI 에이전트 기반 커머스와 개인화 AI를 동시에 확장

- AI 에이전트 쇼핑을 위한 오픈 표준인 Universal Commerce Protocol(UCP)을 발표. UCP는 Search와 Gemini 안에서 개인화 오퍼와 간편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, 기존의 다른 에이전트 프로토콜들과도 함께 동작하도록 확장될 예정

마이크로소프트(MSFT.US): 데이터센터 전력비를 소비자 요금에 전가하지 않도록 제도 변경 추진

- 트럼프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빅테크가 전력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기조를 제시.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맞춘 변경을 이번 주부터 시작

메타(META): AI 클러스터 확장에 초집중

- 메타는 Meta Compute를 최상위 AI 인프라 이니셔티브로 출범시키고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과 공급망 파트너십을 한 축으로 묶어, 향후 수십 기가와트에서 장기적으로 수백 기가와트 규모로 컴퓨트 확장을 추진

테슬라(TSLA.US): FSD 일시불 판매 중단하고 구독형으로 전환

- 2026년 2월 14일부터 Full Self-Driving(FSD)을 일시불 옵션으로 판매하지 않고 월 구독 방식만 제공하도록 전환한다고 일론 머스크가 밝힘

월마트(WMT.US): 구글 Gemini 안에서 장바구니 구성과 결제까지 가능한 쇼핑 경험 도입

- 구글 Gemini 대화창 안에서 상품을 찾고 장바구니를 만들고 결제까지 이어지는 쇼핑 경험을 도입하고, 미국에서 먼저 출시한 뒤 해외로 확대할 계획을 제시

오픈AI(비상장): 전력과 컴퓨팅을 통한 AI 인프라 확장 가속

- 오픈AI와 소프트뱅크그룹이 SB Energy에 각각 5억달러씩 총 10억달러를 투자하고, 텍사스의 1.2GW 데이터센터 개발 및 관련 에너지 인프라 확장을 추진

앤스로픽(비상장): Claude for Healthcare 출시로 의료 데이터 연동 기능 확대

- Claude for Healthcare를 출시하고 의료진, 보험자, 개인 사용자가 의료 목적에서 Claude를 활용할 수 있는 HIPAA(미국 의료정보 보호·보안 규정) 대응 제품·도구 묶음을 도입

우주/로봇

스페이스X(비상장): FCC, 스페이스X Starlink Gen2 위성 7,500기 추가 발사 승인

- 미 FCC(미국 연방통신위원회)가 스페이스X의 2세대 Starlink 위성 7,500기 추가 배치를 승인해 Gen2 승인 물량이 총 15,000기로 확대

NASA, ISS 첫 의료 사유 조기 귀환 실시

- NASA가 국제우주정거장(ISS)에서 의료 사유로 승무원 4명을 조기 귀환시키는 첫 조치를 실시했고, SpaceX Crew Dragon이 2026년 1월 14일 ISS에서 분리해 지구로 귀환 절차에 들어감

SkildAI(비상장): 140억 달러 밸류로 14억 달러 투자 유치

- Skild AI는 피츠버그 기반 로보틱스 AI 스타트업으로, 로봇 종류와 작업이 달라도 공통으로 쓰는 범용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(Skild Brain)을 만들어 로봇이 스스로 작업을 배우게 하는 소프트웨어에 집중

EtherealX(비상장): 2,050만달러 자금 유치

- 시리즈 A 투자 유치 이후 기업가치가 약 5.5배 상승해 8,050만달러로 평가됐고, 스페이스X처럼 로켓을 반복 재사용하는 완전 재사용 발사체를 인도에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가진 인도 스타트업

AI/플랫폼

엔비디아(NVDA.US): 일라일릴리와 AI 공동 연구소 설립

- 일라이릴리 연구진과 엔비디아 AI 인력이 한 팀으로 일하면서 데이터 생성, 모델 학습, 실험 검증을 빠르게 반복하는 운영 구조를 목표로 함
- 핵심 기술로 엔비디아의 BioNeMo 플랫폼과 차세대 Vera Rubin 기반 컴퓨팅, 실험 자동화(로보틱스)까지 활용할 예정
- 향후 5년간 최대 10억달러를 인력, 인프라, 컴퓨팅 자원에 공동 투입 예정

애플(APPL.US): 구글 Gemini로 차세대 Siri 개편 추진

- 애플이 구글과 다년 협업 맺고 차세대 Apple Foundation Models을 Gemini 모델과 구글 클라우드 기술 기반으로 구축, 더 개인화된 Siri와 향후 Apple Intelligence 기능에 적용할 예정
- 애플은 검토 결과 구글 기술이 Apple Foundation Models에 가장 적합한 기반이라고 판단했다고 공동 성명에서 밝힘
- Apple Intelligence는 기존처럼 기기 내 처리와 Private Cloud Compute를 중심으로 운영해 프라이버시 기준을 유지하고, Siri의 ChatGPT 연동은 선택적 보조(복잡한 질의용)로 남을 예정

알파벳(GOOGL.US): AI 에이전트 기반 커머스와 개인화 AI를 동시에 확장

- 1월 11일에 AI 에이전트 쇼핑을 위한 오픈 표준인 Universal Commerce Protocol(UCP)을 발표
- UCP는 Search와 Gemini 안에서 개인화 오퍼와 간편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, 기존의 다른 에이전트 프로토콜들과도 함께 동작하도록 확장될 예정
- 1월 14일에는 Gemini 앱에 Personal Intelligence 베타를 도입한다고 발표. 이를 통해 Gmail, Photos, Search, YouTube 기록 등 구글 생태계 데이터를 연결해 더 개인화된 응답을 제공할 예정
- 초기에는 미국에서 유료 구독자 중심으로 제공되고, 향후 무료 버전과 더 많은 국가 및 Search의 AI Mode로도 확대할 계획

마이크로소프트(MSFT.US): 데이터센터 전력비를 소비자 요금에 전가하지 않도록 제도 변경 추진

- 트럼프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빅테크가 전력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기조를 제시.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맞춘 변경을 이번 주부터 시작
-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력뿐 아니라 그에 필요한 송배전 등 인프라 비용까지 데이터센터 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유틸리티, 규제기관과 추진해 지역 주민 전기요금 인상을 막겠다고 밝힘
- 동시에 효율 개선 등으로 전력 수요를 낮추고, 관련 합의와 비용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대하겠다고 소통함

메타(META): AI 클러스터 확장에 초집중

- 메타는 Meta Compute를 최상위 AI 인프라 이니셔티브로 출범시키고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과 공급망 파트너십을 한 축으로 묶어, 향후 수십 기가와트에서 장기적으로 수백 기가와트 규모로 컴퓨트 확장을 추진
- Meta Compute는 SSI 공동 창업자였던 다니엘 그로스와 유튜브/구글/페이팔 출신이며 2009년부터 구글에 합류한 산토시 자나르단이 공동으로 이끌 예정
- 골드만삭스 파트너 출신으로 트럼프 1기 백악관 부보좌관(국가안보)과 부시 행정부 요직을 거친 디나 파월 맥코믹이 사장 겸 부회장으로 합류해 인프라 투자 집행과 전략적 자본 파트너십을 지원할 예정
-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Vistra와 20년 전력구매계약(PPA)을 체결. 또한 Oklo, TerraPower와도 협력해 SMR 등 신규 원전 개발을 지원하고, 2035년까지 최대 6.6GW 규모의 원전 전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로드맵을 제시
- AI 클러스터 확장에 집중하기 위해 Reality Labs 인력은 10% 감축

테슬라(TSLA.US): FSD 일시불 판매 중단하고 구독형으로 전환

- 2026년 2월 14일부터 Full Self-Driving(FSD)을 일시불 옵션으로 판매하지 않고 월 구독 방식만 제공하도록 전환한다고 일론 머스크가 밝힘
- 현재 미국 기준 FSD는 일시불 8,000달러 또는 월 99달러로 제공 중이며, 전환 이후에는 월 구독만 남도록 가격 구조를 단순화함

월마트(WMT.US): 구글 Gemini 안에서 장바구니 구성과 결제까지 가능한 쇼핑 경험 도입

- 구글 Gemini 대화창 안에서 상품을 찾고 장바구니를 만들고 결제까지 이어지는 쇼핑 경험을 도입하고, 미국에서 먼저 출시한 뒤 해외로 확대할 계획을 제시
- 사용자가 월마트 계정을 Gemini와 연결하면 구매 이력과 회원 정보를 활용한 개인화 추천을 제공하고, Gemini에서 고른 상품을

월마트 또는 샘스클럽 기존 온라인 카트와 합쳐 주문하도록 설계

- 이번 통합은 구글의 Universal Commerce Protocol(UCP) 기반 '에이전트형 쇼핑' 흐름에 맞춰 검색부터 결제 완료까지 단계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현

오픈AI(비상장): 전력과 컴퓨팅을 통한 AI 인프라 확장 가속

- 오픈AI와 소프트뱅크그룹이 SB Energy에 각각 5억달러씩 총 10억달러를 투자하고, 텍사스의 1.2GW 데이터센터 개발 및 관련 에너지 인프라 확장을 추진
- 또한 Cerebras로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750MW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공급받는 다년 계약을 체결했고, 계약 가치는 100억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

앤스로픽(비상장): Claude for Healthcare 출시로 의료 데이터 연동 기능 확대

- Claude for Healthcare를 출시하고 의료진, 보험자, 개인 사용자가 의료 목적에서 Claude를 활용할 수 있는 HIPAA(미국 의료정보 보호·보안 규정) 대응 제품·도구 묶음을 도입
- 개인 사용자는 동의 기반으로 휴대폰·스마트워치 등에서 나온 건강 데이터를 동기화해 검사 결과·메모 등을 더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고 질의할 수 있도록 설계

우주/로봇

스페이스X(비상장): FCC, 스페이스X Starlink Gen2 위성 7,500기 추가 발사 승인

- 미 FCC(미국 연방통신위원회)가 스페이스X의 2세대 Starlink 위성 7,500기 추가 배치를 승인해 Gen2 승인 물량이 총 15,000기로 확대
- 승인 범위에는 5개 주파수 대역 운용을 허용해 미국 외 지역에서의 위성-휴대폰 직접 연결과 미국 내 보조 커버리지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됨
- FCC는 나머지 14,988기(추가 신청분)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고, 스페이스X는 승인된 7,500기 중 50%를 2028년 12월 1일까지, 나머지를 2031년 12월 1일까지 발사·운용해야 함

NASA, ISS 첫 의료 사유 조기 귀환 실시

- NASA가 국제우주정거장(ISS)에서 의료 사유로 승무원 4명을 조기 귀환시키는 첫 조치를 실시했고, SpaceX Crew Dragon이 2026년 1월 14일 ISS에서 분리해 지구로 귀환 절차에 들어감
- 귀환 승무원은 NASA의 Zena Cardman, Mike Fincke, 일본 JAXA의 Kimiya Yui, 러시아 Roscosmos의 Oleg Platonov으로 구성되고, 이 중 1명의 건강 문제로 조기 귀환을 결정했으나 당사자와 증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유지
- 캡슐은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(샌디에이고 인근) 태평양에 착수하도록 계획됐고, 당초 일정 대비 약 한 달가량 앞당겨 귀환해 지상에서 정밀 진단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

SkildAI(비상장): 140억 달러 밸류로 14억 달러 투자 유치

- Skild AI는 피츠버그 기반 로보틱스 AI 스타트업으로, 로봇 종류와 작업이 달라도 공통으로 쓰는 범용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(Skild Brain)을 만들어 로봇이 스스로 작업을 배우게 하는 소프트웨어에 집중
- 소프트뱅크 주도로 14억달러 규모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가치가 140억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평가받음
- 엔비디아, 맥쿼리, 1789 캐피탈 등이 이번 라운드에 함께 참여했고, 회사는 누적 조달액이 20억달러를 넘는다고 밝힘

EtherealX(비상장): 2,050만달러 자금 유치

- 시리즈 A 투자 유치 이후 기업가치가 약 5.5배 상승해 8,050만달러로 평가됐고, 스페이스X처럼 로켓을 반복 재사용하는 완전 재사용 발사체를 인도에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가진 인도 스타트업
- 2026년 6~7월 핫파이어(지상 점화) 시험을 목표로 하고 2027년 11~12월 기술실증 발사를 거쳐 2028년 말 상업 발사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
- 페이로드 목표로는 소모형(완전 비재사용) 최대 24.8톤, 부분 재사용 22.8톤, 완전 재사용 8톤 수준으로 LEO(저궤도)에 투입하는 것을 제시함. 단가 목표로는 kg당 350~2,000달러 수준을 언급(로켓랩 뉴트론 4,000달러, 스페이스X 팔콘 헤비 1,600 달러 수준)
- 이미 일본 Space BD, 대만 TASA 등과 총 1.3억달러 규모의 발사 관련 MOU를 체결

SkyFi(비상장): 1,270만달러 시리즈A 유치

- SkyFi는 위성·항공 영상 공급사 50곳 이상을 묶는 '위성영상 마켓플레이스(일종의 Getty Images 모델)'를 운영하고, 웹·모바일에서 영상 구매와 분석 인사이트를 제공함
- 주요 제품/서비스는 사용자가 특정 시간·장소를 지정해 위성을 촬영 요청하는 태스킹(tasking) 기능과, 고객 요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상품을 늘려 정부·상업 고객의 의사결정용 답을 제공하는 주문형 분석이 있음
- 확보 자금은 플랫폼과 분석 역량 확장 및 팀 보강에 투입할 예정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(김재임, 김시현)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,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.
-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- 당사는 2026년 01월 1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%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
-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(김재임, 김시현)는 2026년 01월 16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